“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㉟ 능엄경(楞嚴經) 2

아난이 부처님께 삼관법문을 청했지만 부처님은 답변대신 왜 애욕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했는지 물으신다.

“아난아, 너와 나는 혈육이며 동기간이다. 그런데 너는 처음 발심할 때 나의 법 가운데서 어떤 원만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았기에 세간의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버리고 출가했는가?”

그러자 아난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32상을 뵙고 청정하신 모습이 너무 좋아 갑자기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 출가를 결심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그런 아난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흠모하였느냐고 되물으신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세존을 사랑하고 흠모하게 된 것은 저의 마음과 눈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내어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발심하여 생사를 버리기로 발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냉정한 눈빛으로 아난을 보며 말씀하신다.

“네 말대로 진실로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은 너의 분별하는 마음과 견해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하지만 너의 마음과 견해가 있는 처소를 모른다면 모든 번뇌를 항복 받진 못하리라. 이를 비유하면 국왕(여래장)이 도적(근본번뇌, 아난이 일으킨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의 무리가 나라를 휩쓸 때, 군대를 풀어 진압하려면(삼관정진수행) 현재 도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곳을 알아 작전을 실행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네가 생사를 마치지 못하고 항상 육도윤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너의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눈(見=안목)이 그 허물의 근원지다. 그러니 아난아, 너의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난은 당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모범답안이며 부처님은 바로 삼관수행에 대해 법문을 설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다. 어쩐지 점점 이 망신스런 상황이 깊어져 가는 듯 했다.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더 이상 오답을 말하기도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변명하듯 말한다.

“세상에는 10가지 종류의 중생들이 있으며 이들 역시 모두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바로 몸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청련화 같은 눈이 부처님 얼굴에 있듯이 제가 지금 보아 아는 저의 눈을 관찰해 봐도 제 눈은 제 안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아난이 처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런 아난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부처님은 “네가 머물러 보는 곳은 기원정사다. 이곳에서 보는 강당과 숲은 지금 어느 처소에 있느냐”고 묻고, 다시 “강당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있느냐”고 묻는다. 아난이 “부처님을 뵙고, 대중을 보고, 숲을 본다”고 말하자, “그 숲을 어떻게 보는가?” 다시 부처님이 물으니 “창문이 열렸으니 본다”고 답하는 아난을 향해 금색 팔을 뻗어 정수리를 만지시며 말씀하신다. “강당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은 강당 안의 여래를 보지 못한 채 강당 밖을 보는 경우가 있는가?” 물으시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아난이 말한다.

“아난아,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너의 마음은 일체의 대상경계를 만날 때마다 명료하게 인식해 안다. 그러니 너의 몸 깊은 곳에 있는 심장, 간장, 비장, 위장은 보지 못해도 겉으로 드러난 손발톱, 머리카락이 자라고 근육이 움직이고 맥박이 요동하는 이런 일을 다 알아야 하는데 왜 알지 못하는가. 답해 보라”

그러자 아난은 “몸 밖에 있다”고 답하지만 부처님은 이 역시 아난의 견해를 수수께끼 풀어가듯 질문을 던지며 아난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는 7처증심(七處徵心)의 교수법을 사용한다. “마음이 몸 안에 있다. 마음은 몸 밖에 있다. 마음이 눈에 있다. 마음이 명암을 분별한다. 마음은 인연이 화합하는 곳을 따른다. 마음은 중간에 있다.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다”며 아난이 7가지 장소에 애착하는 마음을 모두 깨뜨려주는 가르침을 준다. 아난이 오온을 마음으로, 또 실제적인 ‘我(아)’로 착각하고 있는 아집을 깨뜨려 주려하지만 아난에게 두려움이 먼저 일어날까봐 걱정하며 그의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며 안심시키는 대목은 제자를 향한 부처님의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속히 깨달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허둥거리고 있을 때 허망한 식심(識心)은 마음이 아니라는 7처증심의 가르침은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혀 여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스펙’ 쌓기보다 ‘마음’ 닦기가 중요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㉞ 진심 닦아 능력자 되다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하여 ‘배워라, 스펙을 쌓아라, 자격을 갖추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의 진심(嗔心 · 성내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왜 안 되나’ 하는 마음을 해탈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닦아야 비로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배려심이 곧 리더십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리더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 역시 마음속에서 ‘안 된다, 못 한다’는 생각이 ‘된다, 할 수 있다’로 바뀔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심 해탈은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결정적 조건입니다. 선지식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석가여래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구족한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구하려 하면 다 구해지는 것이다. 얻으려 하면 다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하지만 아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안 된다’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 된다’라는 진심만 없다면 아니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언제인가 정미소를 하는 도반이 찾아와 선지식께 여쭈었다.

“제가 허약해서 쌀가마를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여 사람들이 ‘저것 하나 못 들면서 정미소 사장이야?’ 하며 업신여깁니다. 제가 쌀가마를 마음대로 들 수 있다면 정미소 직원들을 통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금강경〉 공부를 잘 한다면 쌀을 들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면 안 될 것 없지. 정미소 앞, 늘 자주 다니는 길목에 쌀 한 가마니를 놓고 지날 때마다 내가 저것을 마음대로 못 들지 하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보아라. 처음에는 그 생각이 바쳐지지 아니하지만 꾸준히 바치는 연습을 하면, 결국 무거워 못 든다는 생각이 없어지며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무거워 못 든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100일 동안 꾸준히 바친 결과 결국 불가능하던 쌀가마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장사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안 된다, 못 한다’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수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 자신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착각이거니 하고 부처님께 바치다 보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된 일이 어느덧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일 출가 수도로 선지식의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생을 병약한 사람, 끈기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중노동인 목장 일로 견디기 힘들 때마다 ‘나는 허약하다’ ‘나는 끈기가 없어 한 가지 일을 오래 못 한다’는 생각을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건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지식께서는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들 어찌 없어지겠느냐? 그런데 그런 생각은 착각이요, 없는 것이기에 부처님께 바친다면 본래 없는 자리 곧 부처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니 된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해탈하게 된다면 아니 될 일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못한다는 생각도 착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면 못 할 일도 없을 것이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100만 배(拜)와 ‘이 뭣고’

오늘은 대둔산 태고사(太古寺)서 100일 동안 체중이 15kg이나 빠지면서 하루 3천배씩 30만 배를 시작으로 100만 배 감사회향(感謝回向)을 한 뜻깊은 날이다.

멸아만시하심즉성불(滅我慢是下心卽成佛)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최고다 하는 아만심서 벗어나 머리가 땅에 닿게 낮추어 하심(下心)이 되어야 부처를 이룬다. 즉 아무리 도(道)에 이르렀다 해도 조금이라도 아만병(我慢病)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성불(成佛)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중생이 아만서 벗어나는 길은 그 원인이 되는 사번뇌(四煩惱)인 아치(我癡), 아견(我見), 아만(我慢), 아애(我愛)를 다스려서 거짓 나(我)이자 제 7말라식인 자아(自我)를 죽이고 본래 청정한 참나(眞我)가 되는 것이다. 그 자아는 대상(對象)과 연(緣)이 합(合)이 됐을 때 생기는 것이고, 그 반대이면 무아(無我)인 것이다. 또한 무명으로 참나를 모르고, 자아(自我)의 상(相)놀음에 머무르며 탐욕과 어리석음을 근본으로 삼아 항상 거짓 자기에 집착한다.

뱁새는 깊은 숲속에 앉아 있어도 일지(一枝), 한 개의 나무 가지면 족하고, 고래가 대해(大海)의 물속에 산다 해도 그 배만 채우면 그만인 것이다. 무엇이든 자기의 그릇을 모르고 비우려 하지 않고 더 채우려 하는 데서 화(禍)가 따르는 법이다.

중생은 불성의 평등함을 망각하고 타인에게 교만하고 경시하며 스스로 지고하다는 마음을 일으켜 자기 잘난 맛에 도취된, 즉 목에 기브스하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만의 독특한 사량(思量) 분별심(分別心)의 안경을 끼고 시기와 질투로 온갖 시시비비를 만들어 낸다.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지녔음에도 더욱 더 채우려는 욕심이 강해 언제나 더 채우려는 욕망만큼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다.

무명(無明)인 내 한 생각이 자신의 습관을 익혀놓고 그것에 중독돼 업(業)이 되면 그것이 육도 세계로 나를 끌고 다닌다. 즉 자기가 생각의 덫을 놓고 그 속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 중생 허물이며 기약 없는 윤회이다. 그래서 연기의 씨앗인 그 한 생각을 지우면 그 자리가 바로 그렇게 그리던 생사 없는 내 고향(故鄕)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장 난 생각들을 치유하려면 그 생각이 나온 그 근본 자리에서 ‘이 뭣고’로 바로 고쳐 돌려놓아야지, 그 생각을 고치려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 생각의 업(業)만 더욱 더 쌓여진다.

그래서 나의 육근으로 인(因)하여 다겁생래로 익혀진 습(習)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출가이며 깨달음인 것이다.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욕계에 태어난 이상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비우고 또 비워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수행법은 오직 ‘이 뭣고?’ 뿐이다.

〈원각경〉에 이환즉각(離幻卽覺)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환영(幻影)을 여의면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말이다. 또한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 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진리를 의심 없이 믿고 신심이 바탕 되어 탐욕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이나 마음의 욕망에 빠지지 말고, 탐욕의 근원을 ‘이 뭣고’로 녹이며, 괴로움 즐거움 슬픔 기쁨 등의 경계에 직면할 때 염기즉각(念起卽覺), 각지즉무(覺知卽無)라는 말처럼 그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이 뭣고’ 하면 바로 지워 지면서 그 주체인 참나와 하나가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반야바라밀의 행(行)이 되는 것이며, 지혜광명을 생활 속에서 쓰게 되는 것이니 무엇을 밖에서 구할 것이 있겠는가?

모든 근심은 애욕서, 재앙은 물욕서, 허물은 경망에서, 죄(罪)는 참지 못해서 생긴다. 오늘 하루도 생활속에서 인욕의 산을 넘어 해탈의 길로 가는 ‘이 뭣고’의 지혜를 청하길 권한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고암대종사 열반 3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과 미래

올해는 자비보살로 존경받는 고암상언 대종사의 열반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용성진종 조사의 선맥을 이은 대선사이자 종단의 계맥을 전수한 대율사이며 종정을 세 차례나 역임한 현대한국불교의 고승입니다. 고암문도회에서는 대종사께서 한국불교에 끼친 각 방면의 영향과 공덕을 살펴보고 그 계승을 다짐하는 학술세미나와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추모 학술세미나＊

일시_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1시~6시
장소_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서울 조계사 내)

＊추모 다례재＊

일시_ 2018년 10월 23일(음 9월 15일) 오전 10시
장소_ 가야산 해인사 용탑선원

“고암대종사 일대기” 방영 : 불교TV(BTN) 2018년 10월 23일

발표 논문

- 종정제도의 기원과 전개_김응철
- 한국불교의 계맥과 계단 개설_이자랑
- 한국불교의 선교율 동수론(同修論) 고찰_이종수
-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역사와 전망_서재영
- 한국불교에서 용성문도의 위상_마성
- 고암상언의 생애와 사상 탐구_김광식
- 일화로 살펴본 고암상언의 삶과 생각_이학종

고암문도회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